

## 사회와 권위

-M. 호르크하이머의 「권위와 가족」을 중심으로-

최 성 환

**주제분류** 사회철학, 역사철학, 비판이론

**주요어** 권위, 가족, 사회, 변증법, 권력, 호르크하이머

**요약문**

사회적 연대와 결속이 전통적 사회에 비교해서 많이 느슨해졌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공동체 의식의 변화는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사회적 결속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새로운 연대의 구심점 혹은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호르크하이머는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있어서 권위가 가정 및 사회결속의 원동력이었으며, 이 권위는 특히 경제적 능력에 의해 부여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문제는 권위의 수용이 의식화와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의 '몰화'라는 부정적 양상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근대가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인간해방과 현실적인 사회관계 사이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양립될 수 없는 강제성과 자율성이 근대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동시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르크하이머의 분석은 '공동체 원형으로서의 가족'의 해체에 대한 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작금에, 특히 가족주의라는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회통합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상일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권위의 문제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공동체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sup> 또한 ‘공동체 원형으로서의 가족’의 해체에 대한 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주의라는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적어도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결속의 힘으로서 작용했던 기존의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사회의 결속을 가능케 하였던 구심점으로서의 전통적인 권위의 붕괴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재촉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형성과 결속력이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유래하는 ‘권위’(의 물화)에 의해 매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 호르크하이머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1)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 사이에서』, 아카넷, 2001. 참조
- 2) 강정인,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3쪽 아래 참조
- 3) H. Pitkin, *Obligation and Consent*, in: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eds. P. Laslett, W. G. Runciman a. Q. Sinner), Oxford 1972, 46쪽 아래. 권위와 사회적 안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안정은 권위에 대한 일종의 순응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로 통해 갈등이 심화되면 바로 기존 권위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4) 백승균, 『변증법적 비판이론』, 경문사, 1982, 132쪽 아래. 호르크하이머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 소외가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적 풍요성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상정한다. (기술 원리라는 지배법칙 아래의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지배의 주체에서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제적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진보나 발전이라는 개념 역시 지배의 관계를 역행시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개별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전체 과정의 비합리적 진행이라는 모순적 형상이 인간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의 논문이 거의 70년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제시된 「가족과 권위」는 권위의 개념사, 권위의 본질, 권위(개념)의 철학적 배경, 구체적 사례로서 가족에서의 권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자본주의와 가족주의의 교묘한 결합’이 사회 구조의 변동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가진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 『권위와 가족』: 문화, 권위 그리고 가족

1933년 출간된 「권위와 가족」의 서문에서 호르크하이머는 “구성적이고 경험적 방식의 상호연결, 마찬가지로 상이한 분과학문의 대표자들에 의한 일관된 공동작업”으로, 즉 오늘날 ‘학제적 연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 책이 기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5)</sup> 여기서 철학은 ‘구성’의 과제를, 사회학은 ‘경험적 토대’를 제시하는 과제를 가진다.<sup>6)</sup> 하지만 경험적 토대에

---

남은 문제는 도대체 발전이나 과정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역사적인 상대성(제약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론은 전체사적인 인간생활양식의 생산자로서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sup>1)</sup> 특히 그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기계적 노동에 집중하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인간문제와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5) J. Habermas, *Bemerkungen zur Entwicklungsgeschichte des Horkheimerschen Werkes*, in: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Hg. A. Schmidt u. N. Altwicker), Frankfurt 1986, 163쪽.
- 6) 백승균, 위의 책, 149쪽. 『사회연구지』 제6집에 발표된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비판이론의 정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의 확신은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동경이야말로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세계의 변화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이론이 경험적 학문이어야 하는 동시에 실천적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사회학과 사회철학 그리고 분석과 당위의 결합을 함축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이론은 사회적 현실논쟁이어야 하고, 부정의를

대한 요구를 실증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은 오해하게 된다.<sup>7)</sup>

그러나 실제로 이 논문집은, 호르크하이머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족에서의 권위가 아니라 가족 일반에 대한 비과학적 논문들로 대부분 채워지게 된다. 호르크하이머는 모든 논문들이 상이한 문제영역에서 가족에 대한 유물론적 이론을 가설의 형식에서 전개해야만 했다고 슬회하고 있다. 이 가설은 사회적 결합의 요소로서 가족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sup>8)</sup>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의 논문은 그가 원래 관심을 가졌던 (본래 논리학에 속하였던) 몇 개의 범주를 사회적 물음과의 관계에서 다루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sup>9)</sup> 이에 상응하게 그의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편성(문화), 특수성(권위), 개별성(가족)이라는 범주를 다루고 있다. 비록 이 논문이 지금까지의 호르크하이머의 작업에 견주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변증법적 방법의 구조를 잘 드러낸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세 범주(문화, 권위, 가족)의 상호관계, 부분적으로는 각 범주에 내재된 대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권위와 가족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을 미리 결론짓자

---

철폐시켜야 하며,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현실성과 당위성을 띤 이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7) M. Horkheimer, *Kritische Theorie*, Bd. II, FfM 1968, 200쪽. 미완결적 구상이 비판이론의 일반적 취약점이기도 하지만, 폐쇄적 사회이론과 통일과학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근본적 거부감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진리에서, 아니 그 철학 자체에서 안정을 구하고자 하는 철학은 비판이론과 무관하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1) 개념적 완결성, 체계성을 추구하는 전통적 철학에 대한 비판, 2)독단적 사회이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8) R. Wiggershaus, *Die Frankfurter Schule*, München 1988, 172쪽. 또한 호르크하이머 자신도 처음에는 저자로서 이 논문집에 참가하려 하지 않았고, 변증법 논리에 관한 작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서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첫 연구보고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일반적인 이론적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9) 같은 책, 172쪽 아래.

면 다음과 같다: 문화는 (상호)관계의 총체이고, 이 관계가 서로를 유지시키는 역동적 힘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사회와 사회의 구성요소(가족)의 위기가 도래하며, 마찬가지로 관계의 참여자 즉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한에 있어서 종속관계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적 사회란 이러한 관계가 생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이다. 만약 종속관계가 물화(Verdinglichung)되어서 마치 하나의 독립된 대상으로 간주될 때 바로 사회적 모순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권위, 사회적 종속관계는 내재적 모순에 의해 몰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결론과 함께, 근대적 사회를 지속하려는 어떠한 발작적 시도도 이미 기존 사회의 붕괴를 의미하거나 인간 발전의 정체를 의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은 근대의 지배적 사회형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호르크하이머 이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sup>10)</sup>

### 3. 역사적 - 사회적 범주로서의 권위: 인간 본성과 권위

호르크하이머는 ‘권위’, 즉 사회적 종속관계를 근원적인 역사적·사회적 범주로 규정하기에 앞서 역사과정 자체가 ‘지속과 변화’라는 기본적 틀에 의해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를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sup>11)</sup> 사회분석의 사전 준비 단계는 1) 권위가 한 시대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10) 백승균, 위의 책, 128~129쪽. 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비판이론 대표자들의 일반적 경향은 그들이 확정된 미래의 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호르크하이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독단적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론이야말로 어떠한 확정된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결과도 제시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호르크하이머는 자신의 이론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1) 발렘 반 라이헨, 『비판으로서의 철학』, 서광사, 2000, 102쪽.

2)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3) 특별한 사회 구성요소에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초작업이다.<sup>12)</sup> 이를 통해 호르크하이머가 이 연구의 기본적 사유 모델로 삼고 있는 보편성(문화)과 특수성(권위) 그리고 개별성(가족)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의 타당함도 동시에 드러난다.

역사과정의 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과 ‘변화’라는 두 가지 근본적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논리적 물음’이다. 구분은 차이를 통해 생겨나고, 차이는 비교를 통해, 비교는 동일한(적어도 유사한) 대상 또는 문제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분은 연속성의 전제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J.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을 연상시키는 내용과 유사하게 호르크하이머는 역사의 구분 방식이 대상뿐만 아니라 지식수준 그리고 인식자의 관심에 의해 규정된다고 언급한다. 기존의 구분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이 문제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자체가 바로 전체 인류의 역사란 ‘사건들의 구분되지 않는 혼란한 계열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체에서 구조화된 통일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3)</sup>

학문사적으로는 역사적 시기구분의 노력이 사회적 삶의 개별적 부분에 대한 연구에 의해 선행되어졌고, 각각의 이론들은 역사적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비록 각각의 사회학적 체계가 역사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가 상대적 통일성 즉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생각은 유지되어 왔다.<sup>14)</sup>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호르크하이머

12) K. Röttgers, *Autorität(Ar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Stuttgart, 1971, 724-733쪽 참조. 권위의 ‘개념사’는 인간 공동체와 권위는 불가분의 고나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간학적 ‘상수’(Konstante)이며 ‘관계형성의 틀’임을 뜻한다.

13) H. Horkheimer, “*Autorität und Familie*”, in: *Traditionelle und kritische Theorie. Fünf Aufsätze*, FfM 1968(이하 ‘권위와 가족’으로 약함), 162-163쪽.

14) 권위와 가족, 164-165쪽. 그것은 헤르더, 헤겔, 랑케, 딜타이로 이어지는 독일 역사철학적 사유에 잘 드러나 있다. 관념론적 철학이 시대를 정신적 존재의 시

는 1)역사는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이 고대의 사회적 형식과 결합되는 커다란 선을 그리게 되며, 2)현재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의 고유한 문제에 근거하여 통일적 구조를 드러낸다. 이 구조는 경제적 활동, 법률, 정치,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형태 지운다. 따라서 인간의 심적 기초에서뿐만 아니라, 조직들과 작품들에 드러나는 이 시기들 사이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로 간주되는 것이다.<sup>15)</sup>

변증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호르크하이머는 거대한 사회적 연관들이 지속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들에는 동시에 서로 마주하여 진행되는 합법칙성(지속과 변화)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1)다소간의 거친 유사성에서 반복되는 과정(지속)과, 2)사회적 계급의 위상 상호간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똑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궁극적으로 해당하는 문화의 소멸과 극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경향(변화)이다. (비록 호르크하이머가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내부의 안정성을 유지한 18세기 중국과 인도의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사회형식에 대해서 그는 이 사회(인간의 공동생활)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내적 근거들에 의해서 몰락으로 치닫는 형태, 즉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단언한다.<sup>16)</sup>

그러나 호르크하이머는 사회형성의 이중적인 합법칙성을 통한 문화고찰에 있어서 ‘전체적 설명’(사회경제적 분석)과 ‘부분적’ 혹은 ‘보충적 설명’(심리적 분석)을 구분한다. 문화의 유지 또는 극복과정의 방향과 템포

현(示顯)으로 환원한다면, 유물론적 방향은 이 형이상학적 요소를 (시대의 과정, 전개와 몰락에 결정적인) 경제적 역동성의 발견을 통하여 넘어서려고 시도한다.

15)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문화라는 표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화란 목적 규정된 인간의 반응과 설비 즉 문명과, 계급과 민족의 이른바 정신적 삶의 표현 즉 문화를 포괄한다.

16) 권위와 가족, 167쪽. 이런 현상을 통일적인 이론으로 파악하려는 역사학과 사회학은 이 세력충돌의 과정을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싸움으로, 내적으로는 사회적 계급의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장치의 합법칙성을 통하여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의) 인간의 행위방식은 단지 경제적 사건들로부터만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적 집단들은 각각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성격에 근거하여 반응한다. 이 성격은 전체 사회적 조직들의 작용으로부터 생겨나고, 이 조직들은 각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 고유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호르크하이머의 사회관계 분석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다. 생산방식은 인간들을 그들의 노동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단지 직접적이고 현재의 형태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견고한, 즉 가족, 학교, 교회, 예술행사와 같이 단지 서서히 변화하는 제도(조직)에서 노동과정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체문화는 그것의 연루관계(Verflechtung)에서 각각 특정한 사회형식의 유지 또는 파괴를 결정짓는 역동적 요소이다. 문화는 각각의 개별적 시점에서 스스로 문화들의 변화 속에서 힘들의 총괄개념이다.”<sup>17)</sup>

다소 소박해 보이는 자신의 테제에 대해 제기될 반론을 호르크하이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해명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심리적-정신적 기초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그의 시도는 “실재론적 기억”에 의해 비판될 수 있다. 낙후된 생산관계의 유지 그리고 (그 위에 근거된) 사회구성의 견고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회에 있어서 각각의 집단소속에 따라) 특징적인 심리적 소질(Triebveranlagung)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경제적 가능성의 영역에서) 통치기술, 국가의 권력조직, 궁극적으로 물리적 힘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반론의 내용이다. 쉽게 표현하면 정신적 요소가 아니라 물질적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니체와 프로이트가 공히 주장하듯이 주어진 질서에서의 순응(Sich-Einfügen) 즉 사회적 본성은, 그것이 실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근거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제행위에 대한 기억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이 강제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사회적으로 적응하게 (soziabel)되고, 문명화되고, 오늘날 그것을 망각할 때 위협받는 것이다.<sup>18)</sup>

17) 권위와 가족, 168쪽.

그러나 호르크하이머는 과거와 현재의 강제가 인간 영혼의 가장 미묘한 표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 강제가 형성되는) 가족, 학교, 교회와 같은 모든 매개적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법적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제는 주어진 질서를 위반하는 자의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와 그의 가족의 굶주림에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실존적 강제’라 부를 수 있다. 굶주림은 인간을 노동의 주어진 조건 아래 항상 되풀이해서 예속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발전의 과정에서(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에 있어서는) 처벌의 잔혹함과 공개성이 완화되어졌다. 그것의 위협은 더욱 더 차별화 되고, 정신 속에 각인되어져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놀람이 공포로, 공포가 조심으로 변화되어졌다.<sup>19)</sup> 그리고 경제적 부흥의 시기에서 사회적 부의 증가와 더불어 처벌이 구사했던 기능들의 한 부분이 그것의 긍정적인 대립물 즉 포상에 대한 기대로 옮겨졌던 것처럼 주인과 감시자가 부분적으로 관념화됨으로써 신성(Gottheit) 또는 이념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강제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왜 지배적 계급이 문화의 몰락시기에서도 더 나은 생산방식을 위한 경제적 제도장치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가를 설명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더 나아가 호르크하이머는 내면화의 과정에서 강제의 상이한 성질들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이 강제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강제의 한 부분이 내면화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은 게다가 정신적인 것으로의 단순한 변형도 아니고, 타산적 이성에 의한 참혹한 경험의 단순한 수용, 또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영역에로의 명백한 투시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질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신에 대한 개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수한 종속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표상은 사회적 투쟁의 연관에서 생겨난 끝

18) 권위와 가족, 170쪽.

19) 이것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제시된 관점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0) 권위와 가족, 171쪽.

없는 희구와 복수심, 계획과 동경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 비록 종교가 자신의 전체 내용을 세속적 사건들의 정신적 작업을 통하여 획득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형태를 획득한다. 이 형태가 인간의 심적 소질과 운명에 다시금 재작용하고 사회적 발전의 전체에서 실재성을 형성한다. 도덕표상, 예술, 다른 문화영역이 똑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도덕의식, 양심, 의무표상은 근원적으로 가장 상이한 형식들의 강제와 필연과의 엄밀한 연관에서 발전되었다.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내면화된 폭력, 고유한 영혼에 수용된 가장 내면적인 법칙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개인들의 심적 운영(Haushalt)에서는 고유한 힘들을 나타낸다. 이를 근거로 인간들은 기존하는 것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하는 것이다.<sup>21)</sup>

게다가 성별연합, 가족의 영역에서 성적 관계의 조정은 경제적 조건에 의존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잔혹하게 억압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의 과정에서 생겨난 낭만적 사랑은 개별들에게 대립, 즉 사회와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이 되어버린 성(性)과 상냥함, 우정과 신뢰의 (결코 자연적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결합은 모두 특정한 사회적 발전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적 요소이다. 그것들은 주어진 시기에서 인간 존재의 특징이고, 이 특징들은 상응하는 문화적 장치에 의해 항상 새롭게 생산되고, 다시금 스스로를 조건짓는다. 인간들이 경제적 변화에 반응함으로써 집단들은 각각의 인간적 소질을 근거로 행동한다. 이 소질들은 결코 직접적인 현재로부터, 그리고 심리적 장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요소가 전체 사회적 과정에서 뒤섞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 기인하고 강화와 지속을 성취한 조직들은 단지 상대적으로 고유한 법칙성을 가진다. 그것은 문화가 사회적 역동성에서 고유한 요소를

21) P. Winch, Authority, in: (ed. A. Quinton)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98쪽. Winch는 권위를 일종의 영향력이나 개별 의지 사이에 있는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내적 관계로 파악한다. 그는 사려할 수 있고 경정할 수 있는 인간의지라는 개념이 권위개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형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호르크하이머는 구체적 예로 중국의 조상숭배,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들고 있다.<sup>22)</sup>

특정한 문화의 저항력은 문화 자체에 있어서 특징적인 인간의 반응방식을 통해 매개된다. 따라서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다음의 사실이 제시될 수 있다: 낡은 사회형식의 유지는 직접적으로 단순한 폭력 또는 그들의 물질적(실제적) 관심에 대한 대중의 기만에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사회의 지속의 근거는 바로 인간 본성에 놓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 본성은 당연히 근원적 본질 혹은 통일적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성격을 말한다.<sup>23)</sup> 호르크하이머는 사회이해의 중요한 방법적 원리로서 “생동적 과정들은 구조적 변동,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생성을 통해 특징지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24)</sup> 외적 변화에 있어서 정신적 변화가 뒤따른다. 왜냐하면 힘과 욕구 그리고 생활형식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주 긴장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낡은 사회형식의 지속이 문제가 될 때 통찰들(Einsichten)이 아니라 문화적 관습들의 체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삶의 과정의 기초 위에서) 고착된 인간의 반응방식들(Reaktionsweisen)이 주역을 담당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역사의 형태를 규정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피지배자 자체의 내면에서 확고히 하는 것은 개별적 시기의 전체 문화적 장치의 기능 중의 하나였다. 이 장치의 끊임없이 혁신된 조건처럼 이 장치의 성과로서의 권위에 대한 믿음은 역사에서 부분적으로는 생산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장애를 일으키는 인간의 추진력이다.”<sup>25)</sup>

22) 권위와 가족, 171-178쪽.

23) 권위와 가족, 178쪽. 사회의 운동과 개인의 삶을 근본적이고 비역사적인 통일체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철학적 이론은 1)나중에 등장하는 인간적 특성은 근원적으로 그 맹아(萌芽)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기계론적 발전론이거나, 2)대부분의 철학적 인간학처럼 존재의 형이상학적 근거로부터 야기되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 이론들은 비변증법적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에서 새로운 개별적·사회적 성질이 성립한다는 인식 자체를 해명할 뾰족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24) 권위와 가족, 178쪽.

#### 4. 근대 사회와 권위의 역설

호르크하이머는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열거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체로서 파악하려 한다면 권위가 분명하게 역사이해를 위한 개념적 장치에서 지배적인 범주로 등장한다고 말한다.<sup>25)</sup> 그는 역사적인 과정 전체에서 소수 또는 특정한 집단의 여타 집단의 지배 즉 계급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사회의 모든 형식들이 특징지어진다고 말한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심적 토대가 이미 사회자체를 규정하는 지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 삶의 모든 내적, 외적 영역에서 계급질서가 반영된다. 따라서 권위는 하나의 중심적 역사적 범주이다. 권위가 집단과 개인의 삶에서 가장 상이한 영역들에서 그리고 모든 시기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지금까지의 구조에 기인한다. 그것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노동이 유사 이래로 명령과 지시, 강압과 그에 대한 순종에 의해 진행되어왔음을 의미한다.<sup>27)</sup>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권위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공허하며, 이 개념은 단지 이론의 다른 보편적이고 특수한 개념들과의 연관에서, 즉 특정한 이론적 구조의 계기로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도 그의 변증법적 논리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개념들 상호간의 관계, 실재에 대한 전체 논리적 형성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회이론의 기초로서” 권위범주의 구체적이고 참된 정의는 궁극적으로는 항상 (특정한 실천적-역사적 과제를 통하여 역사적 순간에서 활동적인) 사회이론 자체에서 구할 수 있다. 이론의 현실적 적용 속에서 그 이론에 포함된 개념들의 참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이론 자체도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sup>28)</sup>

25) 권위와 가족, 179쪽 아래.

26) 권위와 가족, 180쪽.

27) 권위와 가족, 181쪽.

28) 권위와 가족, 181쪽.

먼저 호르크하이머는 권위라는 범주의 모순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권위적인 행위는 때로는 (외침에 대한 집단적 저항과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인간적 발전의 조건이지만, 때로는 (정체와 퇴보의 시기에는 각각의 사회형식의 유지에 필수적인 피지배자의 기존의 종속관계의 긍정은 물질적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무능력의 영구화이며) 인간발전 일반에 대한 억압이 되었다. 권위에 대한 긍정과 승인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가에 대한 대답은 단지 해당하는 사회적 상황의 전체적 분석에서 주어질 수 있다.<sup>29)</sup> 승인된 종속관계가 지배적 계급의 객관적 위상에 근거되어졌는지, 아니면 그들의 이성적 필연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인간유형이 부각된다. 그들이 종속관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동시대의 기타 사람들에 비해서 자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전향적으로 행위하게 되며, 그들이 더 이상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노예적으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권위의 강화와 약화가 (그것을 통하여 권위 자체가 역사적 사건의 역동성에서의 요소가 되어진) 문화의 특징들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호르크하이머는 H. J. 라스키의 말을 인용하여 “기존하는 것의 의식적인 비하는 사회의 비판적 시기를 나타내고 스스로 그 사회의 위협의 중요원천이 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를 개선하고 확고히 하려는 발작적인 노력들은(로마 경기장의 십자가, 종교재판의 화형 등) 한 사회 질서의 붕괴 또는 인간 발전의 정체기를 나타낸다.<sup>30)</sup>

호르크하이머는 이제 사회인식의 기본 범주로서 권위를 제시한 다음, 이것의 철학적 배경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사유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투쟁으로서 시작하고, 이 권위에 대항하여 개인의 이성을 권리와 진리의 정당한 원천으로서 내세운다. 호르크하이머는 데카르트를 사고일반에서 ‘권위의 원칙’에 대항한 선구적 투사로 묘사하고 있

29) 권위는 사회제반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16세기-18세기까지는 사회적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간주되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보수기득권에 의해 이데올로기화됨으로써 퇴보적 집단의 특징으로 비판되었다.

30) 권위와 가족, 183쪽 아래.

다. 볼테르와 로크의 이신론과 같은 계몽주의는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권위를 근거로 이 주장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공격한다. 칸트의 도덕법칙은 순수한 실천 이성, 즉 자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피히테에게 이성이란 본질적으로 권위와의 대항을 의미한다. 그의 이성철학은 단순한 이성중심주의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말해질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자각함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학문의 자유는 성립되는 것이다. 피히테가 파악하는 지식인들의 특징은 사고에서의 절대적 자유와 자립성이다.<sup>31)</sup>

이미 중세에서 근세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종교개혁에서의 교황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과 ‘말씀’으로의 회귀는 잘 알려져 있듯이 권위의 이름아래 일어났다. 쇠망하는 세계에서 주도적 원리였던 단순한 전통으로부터의 권위의 정당화는 성장하는 시민적 정신에 의해 부정되어졌다. 그 대신 이론적, 실천적 노동에서의 개인적 수행능력이 사회적 척도로서 제시되어졌다. 그러나 수행능력의 전제가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리아래에서의 삶 또한 노동생산력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억압적이었다. 절대주의와 자유주의 시기의 대중의 비참함, 엄청나게 늘어난 사회적 부에 불구하고 만연된 가난은 해방이 실제로는 소수의 해방이었음을 나타낸다.<sup>32)</sup>

해방의 허구성은 철학에서의 개별성 개념의 추상성에서도 나타난다. 라이프니치의 개별성 개념은 그 자체로 완결된, 외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 힘의 중심(entelechia), 신에 의해 그 자신 위에 정립된 절대적으로 고립된 모나드이다. 사회와 자연으로부터의 개인의 이 분리를 통하여(이 분리는 다른 철학적 이원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시민적 사유가 중세에 대항하여 내세운 자유로운 개별의 개념이 확고한 형이상학적 본질로서 파악되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자유란 실제로 관련되

31) 권위와 가족, 184-187쪽.

32) 권위와 가족, 187쪽 아래.

는 대다수에게는 공업적 수공업의 잔인한 착취기제에게 그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근세의 개별의 원리와 정당성의 근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sup>33)</sup> 오히려 그 관계 자체가 권위적으로 되어졌다. 계급구분이 신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졌지만, 그것이 인간의 노동과정을 통해 야기된다는 것은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미 기존하는 세계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인간에게 하나의 종속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개별이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파악되고 순수한 정신적 존재로 고양되었다는 철학적 사실관계에서 그 자유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sup>34)</sup> 어떠한 권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근세의 자부심은 실로 취약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부심의) 가상성은 근거된 사회적 현실로부터 두 가지 방식에서 전개된다. 이 가상성은 시민적 사회의 생산과정의 불투명성에 그 통일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두 계급의 삶에서 상이한 의미를 획득한다: 1) 자립적인 기업가가 취하는 모든 결정은 그의 선경지명과 창조력의 산물로 드러난다. 천재와 지도자 자질에 대한 근세의 경제학적 철학적 저술에서의 강조도 이러한 배경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명성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기업가의 자유와 이른바 천재성에는 (특히 평범한 규모의 기업가와 관리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태에의 적응이 은폐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용해야만 하는 사회의 비합리적 상태에 종속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기업가의 자유에는 자유

33) Bertrand de Jouvenal, *Sovereignty: An Inquiry into Political Good*(trans. J. H. Hunting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7, 39쪽. 여기서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권위의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권위는 사회생활의 창조자이며, 그것의 지위는 사회적 유대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34) 권위와 가족, 188쪽 아래.

에 대한 거부, 오래 전에 불신된 권위, 우연의 맹목적인 힘의 인정이 놓여있다. 경제의 물화된 권위에 주관이 가능한 한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동시에 시민사회의 현실에서의 이성의 형태이다; 2)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도 특정한 직업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의미에서의 외적 자유는 형식적으로 매우 늦게 알려진 것이다. 12세기에서 17세기에 이어지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수탈의 형태와 과정을 잘 알고 있듯이, 18세기의 계약 자체도 사실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에서 실행하는 주어진 경제적 관계 아래의 예속은 동시에 기업가의 사적 의지 아래의 예속이다. 노동자가 경제적 사실의 권위를 인정함을 통하여 그는 사실적으로 기업가의 권력위상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를 지배하였던 자유와 평등, 이성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관념론적 교설을 신뢰하는 한, 그리고 그가 주어진 관계에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지각하는 한 그의 의식은 실제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다. 왜냐하면 권위들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필연성의 익명적 권력 즉 사실의 언어(*die Sprache der Tatsachen*) 배후에 숨겨져 있다.<sup>35)</sup>

근세에서의 권위의 위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철학에서 주장된 자유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즉 사회적 삶의 과정의 특수한 형식을 통한 필연적인 가상이다. 기업가와 노동자의 두 사회적 집단들에게 이 가상이 평온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각각의 부자유가 생산과정에서의 특정한, 그들의 위상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은폐되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자유란 다른 인간들의 사고와 결단 그리고 행위의 이성적으로 근거되지 않은 종속을 말한다. 이 종속은 바로 시민적 사상가들이 중세를 비판한 바로 그것이다. 계급사이에서 권위관계의 긍정은 상위계급의 상속된 요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경제적 자료들을 직접적 혹은 자연적인 사실로 타당하게 하고, 그들이 그것에 예속되면 어쩔 수 없는 자연적 사실로 간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긍정되는 것이다.<sup>36)</sup>

---

35) 권위와 가족, 189-196쪽.

## 5. 가족에서의 권위

이제 호르크하이머는 보편성(문화)과 특수성(권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별성(가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증법적 종합을 실제로 입증하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중심적인 내용은 가족은 권위의 '내면화'의 장소이며, 사회에 확인되는 지배관계가 구조적인 동일성에서 그대로 가족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대에서 노동과정의 특정한 방식을 통해 설정된 권위에 대한 개인들의 관계는 그에 상응하는 (성격)유형의 생산과 강화에 대한 사회적 조직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성은 사회적 조직들의 의식적인 조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상태 자체의 끊임없는 영향을 통해서 인간의 심적, 정신적 삶의 전반에 (의식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과정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의 심적 형성에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관계들 가운데서 가족은 탁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은 중요한 교육적 대리인의 하나로서 사회적 생활이 요구하는 성격의 재생산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종속되는 특수한 권위적 태도에 대한 필수적인 능력을 많은 부분 제공한다.<sup>37)</sup>

의식적 활동으로서의 가족의 이 기능은 특히 종교개혁과 절대주의의 시기에 드러나게 된다. 개인이 확산되는 새로운 노동규율의 험난한 세계를 회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을 지지하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타자에 대한 냉엄한 무자비함이 자신에게 본성이 될 것을 요구한다. 사회에서의 권위적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가족의 의무는 기독교가 이미 오래 전에 인식하였다. 가정의 평화가 사회 평화의 기초가 되며 아버지는 공동체의 법률에서 가정을 이끌 규칙들을 취하게 된다.<sup>38)</sup>

절대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발전사에 새로운 계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36) 권위와 가족, 198쪽 아래.

37) 권위와 가족, 205쪽 아래.

38) 권위와 가족, 206쪽 아래.

그것은 더 이상 직접적인 순종이 아니라, 반대로 이성의 사용이 요구되었다. 세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는 개인이 순응과 예속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물리적 힘, 자연사실이 개신교에서는 동시에 도덕적이고, 존중되어야 할 관계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실제로(de facto) 더 강하며, 그 까닭에 그는 또한 정당하다(de jure).<sup>39)</sup> 자식은 이 우월함을 상정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상정함으로써 존중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힘 아래에의 예속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품위 있다고 증명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강자임으로 그는 스스로 품위 있다고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족의 몰락과 회복 불가능성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40)</sup>

개신교의 신 개념에는 권위의 물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의식에는 권위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월함의 지양할 수 없는 특성, 질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시민적 사유방식에서는 물질적이고 정신적 재화의 가치가 사회관계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물의 자연적 특성 혹은 반대로 순수한 임의적 평가로서 합리적 분석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권위 또한 (그것이 무정부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확고한 성질로 파악한다. 신에 대한 규정, 예수에 대한 규정 속에 이미 확고한 권위의 성질이 부여되어 있고, 그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것은 동시에 의심할 수 없는 권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권위의 물화된 개념은 현대의 권위적 국가이론에서 국가의 원수(Oberhaupt)에 적용되어진다.<sup>41)</sup>

아버지의 또 다른 자연적 특성이 시민적 가족에서 교육적 요소로서 작

---

39) R. S. Peters, Authority, in: (ed. Anthony Quinton)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84-86쪽 참조, Peters는 권리상의 권위(de jure authority)와 사실상의 권위(de facto authority)를 구분하고 있는 데,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힘(사실상의 권위)이 아버지로서의 위상(권리상의 권위)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40) 권위와 가족, 207쪽 아래.

41) 권위와 가족, 208-211쪽.

용한다. 그는 돈을 벌거나 적어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주인이다. 실제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소유로서 임의로 처분될 수 없는 것이 시민적 사회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예측에 따른 종속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종속의 결과에서 어린이가 성장하는 정신적 세계, 그의 희망과 꿈들은, 그의 표상과 판단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권력, 상부와 하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고에 의해 지배된다. 이 도식은 이 시대의 오성의 형식이고, 하나의 선형적 기능이다.<sup>42)</sup>

가족에서의 권위적 성격형성에 활동적인 개별적 기제에 대해서는 특히 심층심리학이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심층심리학은 연구는 한편으로 어떻게 비자립성, 대부분의 인간들의 깊은 열등의식, 질서와 예측 개념에의 전체 심적 삶의 집중,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문화적 수행능력이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실재성과의 갈등의 결과로서의 변화와 순화의 개념은 이 과정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였다. 권위적 성격의 형성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가 아버지의 강요아래에서 모든 실패란 그것의 사회적 원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원인에서 찾고, 이것을 죄악으로서 종교적으로 또는 결핍된 자질로서 자연주의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크하이머는 무비판적이고 근원적이지 못한 사고와 현상을 본질로 생각하는 사유방식 등이 바로 이러한 교육의 부정적 결과라고 판단한다.<sup>43)</sup>

기본적으로 포상과 처벌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권위적 가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존재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축소된 발전이다. 그로부터 억압을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수 천 년의 문화적 과정

42) 권위와 가족, 211쪽 아래.

43) 권위와 가족, 214쪽.

의 변화된 반복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호르크하이머는 이 억압이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모순들의 맹목적 재생산을 묘사하는 것인지 혹은 개별적 현존의 전개에서 사회에서 극복된 관계를 개선하느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44)</sup>

근세의 사회적 삶의 근본적 구조와 그에 기인하는 문화가 결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가족은 특정한 권위적 성격유형의 생산자로서의 자신의 불가피한 영향력을 수행할 것이다. 가족은 이 역사적 시기를 지배하는 합법칙적 연관의 중요한 계기를 형성한다. 이 통일체의 활력화와 쇄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철저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운동은 권위적인 심정의 생산자로서의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의 강화를 혼외정사에 대한 경멸, 어린이의 생산과 양육에 대한 선전, 가사에 대한 여성의 제한과 같은 모든 그것들의 전제들을 통하여 의무로 삼았다.<sup>45)</sup>

문화적 연관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은 전체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단순히 증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공적인 생활에 대립해서 인간이 경제적 관계와 경쟁자로서 대하지 않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작용하는 가능성을 소유한다. 이 통일체에서 외적 세계와는 달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발전과 행운은 원하여진다. 그를 통해 가족과 적대적인 현실사이의 대립이 생겨나고, 가정은 그런 한에 있어서 시민적 권위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적 상태에 대한 생각으로 이끈다.<sup>46)</sup>

근세 사회에서 가족이 여성을 통해 규정된 인간관계를 통하여 세계의 완전한 탈영혼화에 대한 저항력의 저장소를 이루고 스스로 반권위적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성은 종속의 결과로서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계속해서 남성의 주권에의 예

---

44) 권위와 가족, 217쪽.

45) 권위와 가족, 217쪽 아래.

46) 권위와 가족, 218-222쪽.

속, 즉 남성 종속적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전개는 지속적으로 장애를 경험한다. 남성은 이중적인 방식에서, 즉 사회적 생활이 본질적으로 남성에게 의해 진행되며, 가족을 (대표)지배하는 것이 남자임을 통해서 여성을 지배한다. 앵겔스가 말하는 부권으로의 이행의 근원적 혁명 이래로 이 종속관계는 문화국가들에서 단절되지 않았다. 신교의 교회에서도 여성의 종속은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북미에서의 (중세의 귀부인에 대한 기사의 '연애봉사Minnedienst'를 회상케 하는) 여성에 대한 존경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분쇄되지 않았다고 한다.<sup>47)</sup>

이중적 방식에서 여성의 가정적 역할은 현존하는 권위를 강화한다. 남성의 위상과 수입에 종속된 여성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지배적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에서 연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깊은 경제적, 그러니까 생리적 관심이 여성을 남성의 명예욕과 결합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기 자식의 경제적 안정과 관계가 있다. 여성의 투표권의 도입은 노동집단의 강화가 기대되는 국가에서도 보수적인 권력이 이익을 보았던 것이다. 여성은 직접적으로만 권위-강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족에서의 자신의 전체 위상이 필연적으로 중요한 심적 활력의 족쇄라는 결과를 낳는다.<sup>48)</sup> 여성에게만 유효한 감정표현 방식, 그리고 여성의 많은 금지 혹은 은폐된 활동 등이 모순에서 분열된 심리적 근원으로서 이중적인 심적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비록 여성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라서 가족에서의 권위관계가 변화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태를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심지어 여성의 해방이 너무 늦게 찾아

47) 권위와 가족, 222쪽 아래.

48) T. D. Weldon, *The Vocabulary of Politics*, 56쪽(신득렬, 『권위, 자율 그리고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87쪽에서 재인용). 웰던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1)습관으로부터, 2)불복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염려에서, 3)상대방의 지성과 선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자발적인 복종. 위에서 언급된 여성의 복종은 거의 처음 두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왔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실업이 구조적으로 되어버린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sup>49)</sup>

하나의 주어진 가족에서의 권위관계는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물질적 기반이 사라진 후에도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경제적으로 생겨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자신의 저항력을 증명한다. 종속은 기계적이 아니라 관계의 총체성, 긴장과 대립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매개되어졌다. 호르크하이머는 가부장적 권위의 이상화(Idealisierung)는, 그것이 신적인 결정, 또는 사물의 본성 혹은 이성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든 간에, 하나의 경제적으로 제약된 조직의 변용(變容)이라는 것을 폭로한다.<sup>50)</sup>

호르크하이머의 희망은 사실상 기존의 (역사적으로 전개된) 경제적으로 규정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가족이라는 기본적 사회적 범주의 의미를 인정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는 무산자 계층에서는 권위관계가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교육되지도, 전수되지도 각인되지도 못한다. 무력함과 생산적 노동에의 결핍된 기회는 교육의 새로운 유형의 단조를 이미 지속적으로 드러낸다.<sup>51)</sup> 흥미롭게도 호르크하이머는 사회적 형식과 생동적 활력 사이의 대립을 드러낸 두 가지 예로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돈환을 들고 있다. 행복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가족의 지배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그들은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서도 시민사회의 규칙성이 검증되고 있다. 즉 권위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인간의 애정 문제에서도 지배적이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sup>52)</sup>

시민사회의 시기에 있어서 가족은 인간 혹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다. 개별적 시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에 따라 가족은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 특히 가족은 산업발전의

---

49) 권위와 가족, 223-226쪽.

50) 권위와 가족, 226쪽.

51) 권위와 가족, 227쪽 아래.

52) 권위와 가족, 228쪽.

영향아래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기초로부터 떼어 낼 수 없는 시민사회의 가족의 특징들과 경향들이 묘사되어진다. 권위적 성격의 교육은 일시적인 현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토대이다.<sup>53)</sup> 사회가 자신에 내재된 법칙에 따라서 위기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가족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당연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그 과제를 넘겨받게 될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절정기에 사회와 가족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 반면, 이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가족은 단순한 통치기술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sup>54)</sup>

## 6. 나오는 말: 권위의 변증법

근대에서의 관계의 총체성 즉 문화(보편성)는 그 안에서의 특수한 것(권위)을 통하여 강화되었고,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가족)에서 전개되어왔다. 가족은 그 안에서의 권위와 마찬가지로 생동적이었던 시민 사회적 문화의 아포(芽胞)를 형성한다.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의 변증법적 전체는 이제 상호 분리되려는 힘들의 통일체로서 드러난다. 문화의 분열적 계기는 결합하는 계기보다 더 강하게 등장한다.<sup>55)</sup> 결국 근대(문화)의 위기는 그 종착점을 우리의 시야에 들어서게 한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르크하이머는 (그의 변증법적 고찰방식에 충실하게) 가족에서 시민적 사회에 대립적인 요소들을 지적해내고 있다. 가족은 이른바 “여성들을 통하여 규정된 인간관

53) E. D. Watt, *Authority*, London(Croom Helm) 1982, 7쪽 아래. Watt는 권위가 학습의 경우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거의 자발적인 종속이라 할 수 있다.

54) 권위와 가족, 229쪽 아래.

55) 권위와 가족, 230쪽.

계에 근거하여 세계의 완전한 탈영혼(화)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저장소를 이루며, 어떤 반권위적 요소를 그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기는 주어진 관계아래에서 기존하는 권위관계에로의 순응을 강화했던 여성의 그러한 특성들과 혼용되어진 안정화의 요소로서 증명된다. 호르크하이머는 가족에서의 권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때 무산자 가정에 걸었던 희망을 기억한다. 위기를 고려해 볼 때 미래를 제시하는 이러한 유형의 가족은 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완전한 퇴락, 절대적인 절망에서 비롯되는 모든 주인아래의 예측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효과를 드러낸다. (여기서) 처음으로 호르크하이머에게 있어서 이전의 자유주의 시민계급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sup>56)</sup> 이것은 그가 항상 견지하고 있던 생각의 경험적 기초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권위적 체계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절정기에서는 가족과 사회에서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 데 반해, 즉 아버지의 권위는 사회에서의 그의 역할을 통하여 근거되고, 사회는 권위에로의 가부장적 교육을 통하여 부흥되었던 반면, 이제 (당연히 불가피한) 가족은 단순한 통치기술의 문제가 되었다.” “가족 자체의 형식이 새로운 수단을 통하여 마침내 확고히 된다 하더라도 가족은 전체 중산층의 줄어드는 의미와 함께 가족의 자립적이고, 남성의 자유로운 직업적 노동에 기인하는 힘을 잃어간다.” 가족에 대한 더 명백히 퇴보적이며, 시민적-반시민적 낭만주의에 의해 각인된 것은 호르크하이머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혁명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돈환, 갈등영역에 대한 상징적 형태들과 같은 예들이다. 이 형태들은 그의 시각에서는 권위적 사회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남을 갈등영역, 개별적 인간들의 행운

56) G. Raulet, Kritik der Vernunft und kritischer Gebrauch des Pessimismus, in: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Hg. A. Schmidt u. N. Altwicker), Frankfurt 1986, 33쪽 참조. 실제로 호르크하이머는 30년대부터 쇼펜하우어의 영향아래 유물론이 염세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유물론에 의해 제시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염세주의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 사랑에 대한 요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의 충돌의 갈등영역이다. 호르크하이머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론은 생동적인 권위의 재생산 없이는 권위적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권위적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생동적 권위의 사회가 과연 어디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가는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sup>57)</sup> 어떻든 호르크하이머는 사회 속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상실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이 인간 삶의 의미를 묻고, 본질 그대로의 세계의 의미를 물음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중앙대학교)

---

57) R. Wiggershaus, 위의 책, 176쪽 아래.

58) M. Horkheimer, Kritische Theorie, Bd. II, FfM 1968, 304쪽. 이런 목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르크하이머는 인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관성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1)개개인들의 활동성과 그러한 활동성에 의해 달성된 사실과의 연관성, 2)개개인들의 보다 특수한 실존적 생존과 보편적 사회생활과의 연관성, 3)개개인들의 일상적인 계획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이념들과의 연관성 등이다.

참고문헌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결속 사이에서』, 아카넷, 2001
- 강정인,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발렘 반 라이헨, 『비관으로서의 철학』, 서광사, 2000
- 백승균, 『변증법적 비판이론』, 경문사, 1982
- 신득렬, 『권위, 자율 그리고 교육』,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 양동안, 「권위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一考察」, 『권위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권위」, 『철학탐구』 17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 J. Habermas, Bemerkungen zur Entwicklungsgeschichte des Horkheimerschen Werkes, in: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Hg. A. Schmidt u. N. Altwicker), Frankfurt 1986.
- H. Horkheimer, "Autorität und Familie", in: *Traditionelle und kritische Theorie. Fünf Aufsätze*, FfM 1968.
- M. Horkheimer, *Kritische Theorie*, Bd. II, FfM 1968.
- Bertrand de Jouvenal, *Sovereignty: An Inquiry into Political Good*(trans. J. H. Huntingt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7.
- R. S. Peters, Authority, in: (ed. Anthony Quinton)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H. Pitkin, Obligation and Consent, in: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eds. P. Laslet, W. G. Runciman a. Q. Sinner), Oxford 1972.
- G. Raulet, Kritik der Vernunft und kritischer Gebrauch des Pessimismus, in: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Hg. A. Schmidt u. N. Altwicker), Frankfurt 1986.

- K. Röttgers, *Autorität*(Art.),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Stuttgart, 1971
- E. D. Watt, *Authority*, London(Croom Helm) 1982.
- R. Wiggershaus, *Die Frankfurter Schule*, München 1988.
- P. Winch, *Authority*, in: (ed. A. Quinton)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Zusammenfassung

Sung-Hwan Choi

In dieser Arbeit wird es versucht, anhand der Darstellung Horkheimers die Bedeutung der Autorität in der modernen kapitalischen Gesellschaft zu erklären. In seiner Abhandlung "Familie und Autorität" hat er gezeigt, daß die Struktur einer Gesellschaft als ein Machtverhältnis darzustellen ist, welches allgemein als Autorität bezeichnet wird. Bekanntlich ist Horkheimer einer der Begründer der Frankfurt Schule. Er hat in seinen verschiedenen Arbeiten versucht, di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darzustellen, die die Ausbeutung verursachen. Aber im Unterschied zu Marx geht es ihm nicht um den Klassenunterschied, sondern um den Zivilisationsprozeß, in dem dem Menschen eine instrumentale Funktion zugeschrieben wurde. Daher richtet sich sein Interesse auf die ursprüngliche Grundstruktur der Gesellschaft, die ein Herrschaftsverhältnis ausmacht. Dieser Gedanke tritt auch in seiner Arbeit "Familie und Autorität" auf.

In der schon erwähnten Abhandlung versucht Horkheimer, anhand des Autoritätsbegriffes die Strukturwandel der neuzeitlichen Gesellschaft zu erklären. Dabei nimmt er die Autorität als eine zentrale geschichtliche Kategorie für die Analyse d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der modernen Gesellschaft. Nach ihm hängt z.B. die Autorität eines Vaters in einer Familie von seinem Vermögen zusammen. Aber in dem Prozeß der Verinnerlichung(zugleich der Verdinglichung) wird diese Autorität Vaters nach der Verlust seines Vermögens noch wirksam in der Familie. Dies gilt auch für die Frauen, die auf der Rolle des Vaters angewiesen sind. Jedoch gibt es auch in der Geschichte einige Beispiele für die Verlust der Autorität, die gegen dieses Herrschaftsverhältnis zustanden gekommen sind. Daher muß entsprechen einem Strukturwandel der Gesellschaft ein neues

Bild von Autorität aufgemacht werden, in dem alle Mitglieder der Gesellschaft nach dem Prinzip 'Gleichheit' ihre eigene Stelle einnehmen können.

**Key Words:** Authority, Family, Society, Dialectic, Power, Horkheimer

최성환 e-mail : shchoi@cau.ac.kr